



나눔으로 행복하게!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Monthly 나눔과행복소식 (16호)

매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립니다.
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 기록물이 될 것입니다.

2023.08

미션
MISSION

사랑으로 봅니다

모든 중심에 사람이 있는 세상, 사람을 봅니다.

비전
VISION

비전 2025

정직한 의료와 최적의 치료로 사랑받는 병원, 나눔과 행복

핵심가치
CORE VALUE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전문성을 근간으로 진정성을 담아, 공정함으로 대하고 함께함을 느낄 때, 사회적책임과 즐거움이 실현되는 곳!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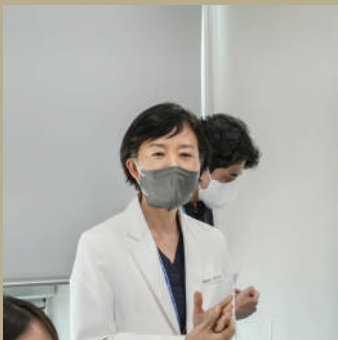


언어인지재활전문센터 발대식 (08.21)

'언어인지재활전문센터'의 의미있는 첫 발걸음으로 8월 21일 월요일, 언어인지재활전문센터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는 일찍이 이 부분에 과감히 투자하여 회복기 병원 중 가장 많은 인지평가 장비와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양질의 진단과 치료를 전담하는 팀이 없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언어와 인지재활에 있어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검사와 치료를 제공하고, 참여자분들의 병력, 인지 수준과 삶의 모습 등을 고려한 개별적인 맞춤치료가 가능하도록 좀 더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담팀인 '언어인지재활전문센터'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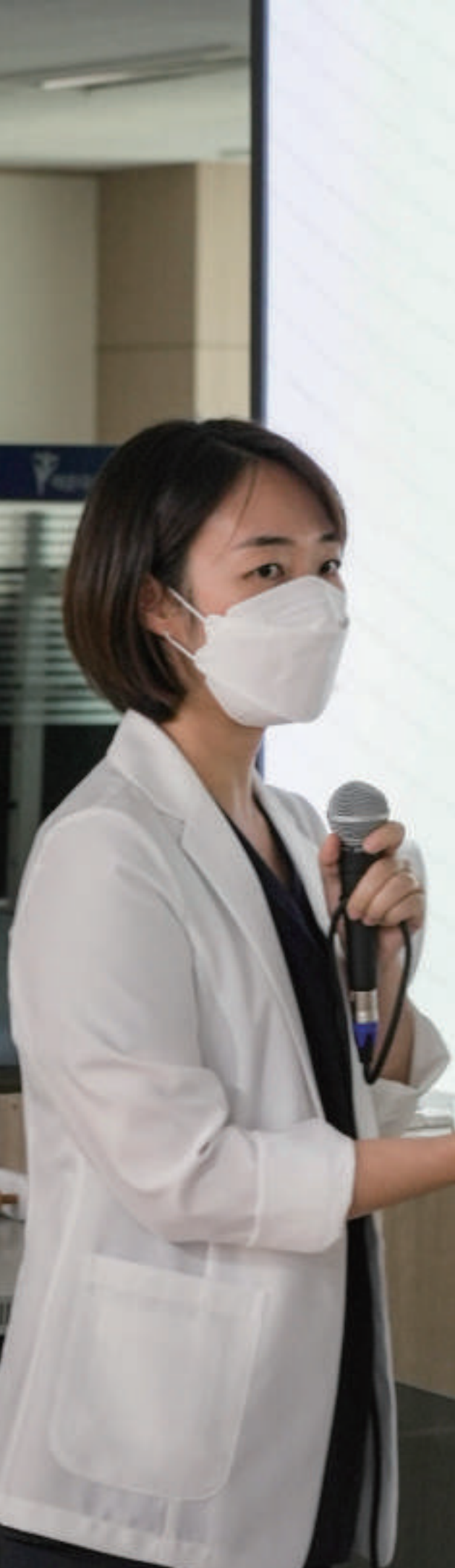


재활센터 대컨퍼런스 (08.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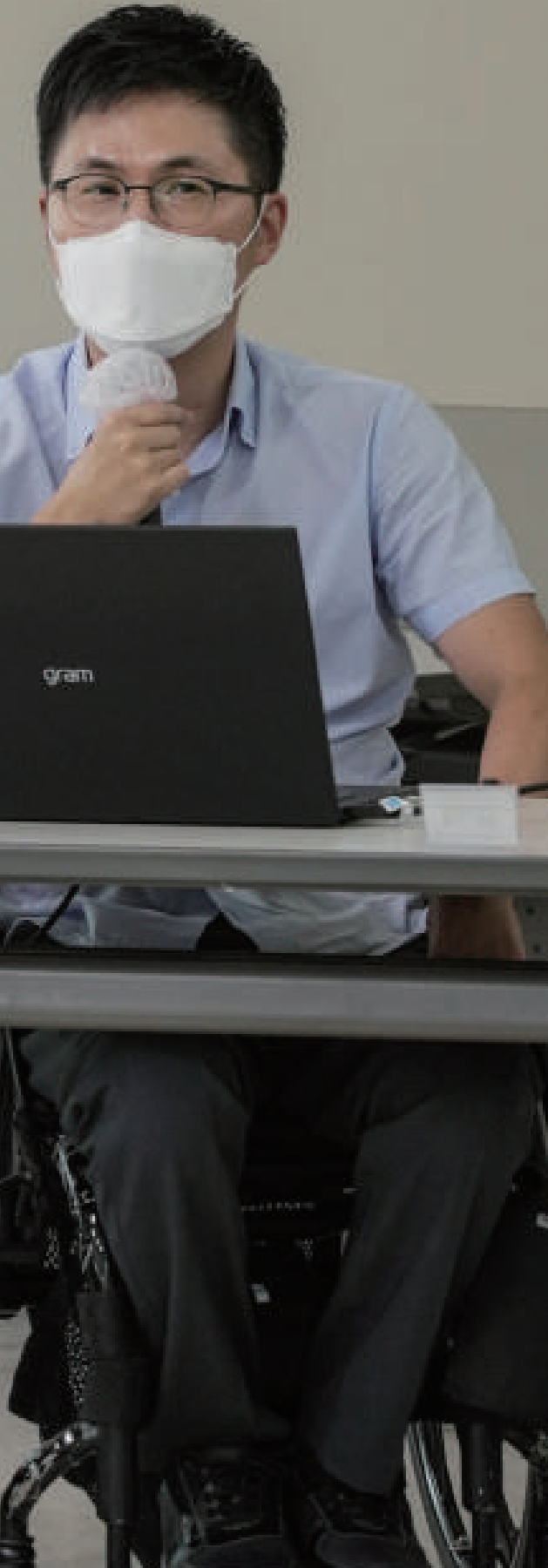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재활센터를 구성하고 있는 진료, 간호, 재활1, 재활2, 언어, 인지, 재활복지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대컨퍼런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간호사, 치료사 등 각 직종의 전문가가 함께 환자 맞춤형 통합치료계획 및 퇴원 계획을 수립하고 치료성과를 점검하며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부산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와 함께 하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3회차, 4회차 (08.08 / 08.22)



부산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와 함께하는 장애관련 이론 및 체험교육을 통해 참여자의 긍정적 장애수용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유도하고 추후 센터의 교육 강사(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3회차, 4회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박영하 센터장님의 진행으로 3회차에는 '장애, 다시 생각하기'라는 주제로, 4회차에는 점자스티커 만들기 및 휠체어·시각장애 볼링 체험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휠체어스쿨 (08.01 / 08.29)

안전하고 효율적인 휠체어 사용방법 안내를 위해 휠체어스쿨을 진행하였습니다. 신규 참여자 7명을 대상으로 기초반을 운영하여 시작하였고, 기존 참여자는 분리 운영하며 외부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휠체어럭비체험 (08.25)

참여자의 외부활동 및 일상복귀 자신감 향상을 위해 장애인스포츠 휠체어럭비를 체험하였습니다. SCI 참여자 세 분, Brain 참여자 한 분, 그리고 재활치료 2팀 선생님 3명과 같이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진행했습니다. 준비운동 후 간단히 자기소개를 한 뒤 선수들과 분리하여 휠체어럭비 규정 및 기본 기술을 연습하였고, 연습 후 선수들과 함께 릴레이 경주와 미니 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참여자 및 직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새롭고 즐거운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집단 상담 프로그램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08.02. / 08.16 / 08.23 / 08.30)

가족 프로그램은 가족의 긍정적 마인드 강화와 가족이 함께 모여 질병에 대한 이해 및 서로를 인정하는 과정으로 가족 지지체계를 돕고자 시작하게 된 프로그램입니다. 8월은 2,3,4,5회기를 진행하였으며 병원정보에 대한 노하우, 정서지원(웃놀이), 문화지원(영화감상)을 나누고 마지막 회기에는 우리 가족에게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아크릴 무드등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무드등을 만들며 서로에게 하고 싶은 속마음을 전달하며 프로그램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공유와 정서, 문화지원으로 다른 가족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앞으로도 힘든 병원 생활에서 활력소를 얻고 참여자와 가족의 미래 계획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밖으로한걸음씩 (0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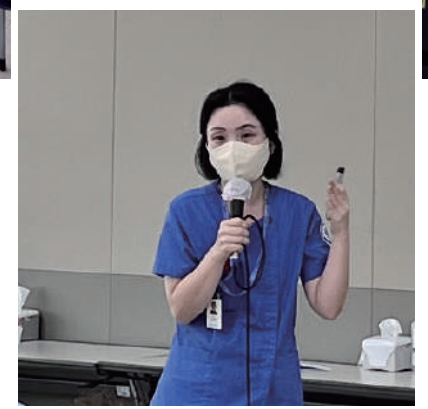
참여자의 외부활동을 지지함으로 퇴원 이후의 원활한 일상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밖으로한걸음씩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전동 휠체어 구매 전 실물을 보면서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고 본인에게 맞는 휠체어를 선택하기 위해 직접 판매 업체에 방문하였습니다. 업체 직원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전동휠체어를 타보며 본인의 체형에 맞는 휠체어를 선택하고 추후 구입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 맞춤형 식사관리 영양팀 김정희 팀장 (08.05)

영양팀에서 특별히 한여름 더위를 이겨내고 떨어진 입맛을 복돋아 줄 수 있는 어르신 맞춤형 식사관리라는 주제로 유익한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필수 영양소와 중요한 단백질,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식습관 개선에 대해 안내해 주며 나트륨 제한에 관한 음식 정보 등을 제공하며 장기간 입원하는 참여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슬기로운 재활생활

참여자의 입원부터 퇴원준비, 퇴원이후까지 일상으로 회복에 도움이 될 상담, 프로그램, 국가보장제도와 지역사회자원연계에 이르는 다양한 내용을 안내하였으며 참여자와 강사 간 상호 질문과 답으로 활발히 이야기 나누며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회복지제도, 알기 쉬운 지역사회자원 안내 사회사업팀 이지혜 부팀장 (08.19)



소방훈련 실시 (0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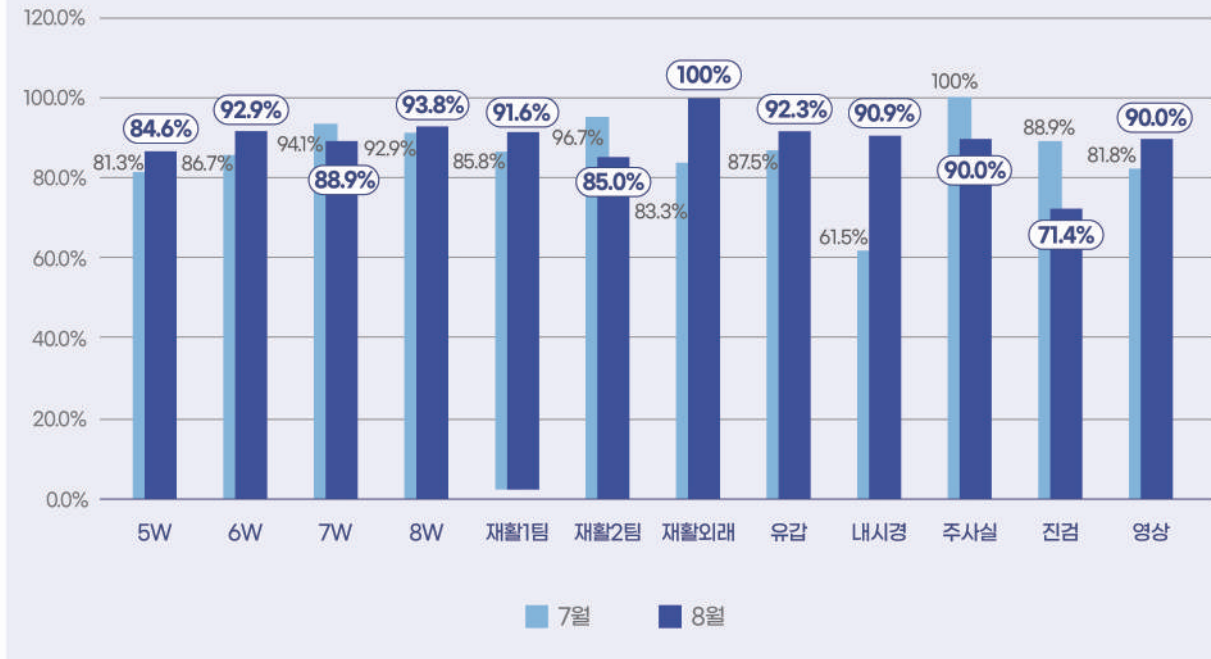
이번 소방훈련은 재난발생을 대비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하여 인명과 시설을 지키는 훈련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자체 소방훈련으로 '가상 화재'가 발생하였을때 자위소방대를 소집하여 각자 임무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였고,

이어 해운대소방서와 합동으로 시나리오에 따른 훈련을 시행 한 후 9층 소망정원에서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8월 부서별 손위생 수행률 (%)



‘재활외래’ 이달의 손위생 우수부서 (08.22)

8월 손위생수행률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재활외래가 100%로 1등에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는 참여자분과 고객들의 감염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손위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손위생을 했는지 물어봐주십시오~ 감염예방을 위한 손위생은 항상 준비되어있습니다!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9층 소망정원 최종 완료 (08.03)

많은 분들이 함께 해서 만든 정원입니다.
 참여자분들 뿐만 아니라 직원분들 모두의 소망이 이뤄지는 정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부산광역시 보조기기센터 방문 (08.01)

윤OO 참여자는 내년 초 다니던 고등학교로 복학하기 위해 '준비된 사회복귀'를 준비하고 계신 분으로 퇴원 전 대중교통을 이용해보고 본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기가 있는지 살펴보고 싶으셨습니다. 이에 사회사업팀, 재활코치팀, 참여자, 보호자와 함께 부산광역시 보조기기센터를 방문하여 다양한 보조기기를 체험하였습니다. 참여자는 본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기를 직접 살펴보고 체험함으로써 본인만의 맞춤형 보조기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욕구를 가지고 계셔서 지하철 중동역에서 거제역까지, 마지막으로 보조기기센터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직접 경험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사회복귀의 막연함,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이벤트 프로그램 '레모나 이벤트 만들기' (08.24)



이번 프로그램은 감사한 사람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레모나 이벤트 만들기'가 진행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전 아이스브레이킹으로 '살면서 가장 고마웠던 사람은?', '내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퇴원 후 한 달 동안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이번 해 목표가 있다면?' 등 질문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자 간 감정을 공유하고 응원하였습니다.

그 다음 직접 참여자, 보호자와 함께 레모나 이벤트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60개의 레모나에 손글씨로 감사한 메시지를 적으며 일상 속 감사함을 느끼고, 서로 레모나를 주고받는 시간을 통해 마음의 힐링을 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달에는 '아미네코 만들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코바늘 사용이 처음이신 참여자와 보호자는 기초반을 통해 코바늘 기초를 배우고 이전에 코바늘 사용 경험이 있는 분들은 중급반에서 아미네코 인형을 만드셨습니다. 느리지만 천천히 코바늘 기초를 배우고 각자의 색이 담긴 아미네코 인형을 직접 뜨며 몸과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손뜨개 프로그램, 털몽치 공방 '아미네코 만들기' (08.09 / 08.30)

함께하는 프로그램



일상재활센터 그룹치료 프로그램 '레모나 이벤트 만들기' (08.16)

프로그램 시작 전 아이스브레이킹으로 한가지의 그림카드를 통한 천가지 마음의 생각 나누기 덕실을 통해 각자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였습니다. 그 다음 직접 참여자, 보호자와 함께 레모나 이벤트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60개의 레모나에 손글씨로 감사한 메시지를 적으며 일상 속 감사함을 느끼고, 직접 만든 레모나를 상대방에게도 선물하면서 서로를 응원하고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8월의 신규입사자



간호팀(8W) 강승연 간호사



간호팀(5W) 여 명 간호사



간호팀(8W) 고도연 간호사



시설팀 김현우 팀원



간호팀(5W) 이정아 간호조무사



재활치료2팀 김동연 작업치료사



언어인지재활센터 전희정 언어치료사



재활치료2팀 홍근호 작업치료사



간호팀(5W) 조은하 간호조무사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일상속으로 주거환경개선 후원인 감사 미팅 (08.22)

소중한 의미로 자리매김한 주
첫시작을 열어주셨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은 많은 지지해와 기업들에서 시행하고
결국은 장애인들 중심으로 의사, 치료사,
가게 힘입어서 장애를 분석하고 그 장애에 적
서 생활할 수 있도록 경험하고 훈련하는 것
일상속으로의 복귀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에
입니다.

장애인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일상과 사회로의
다그마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과의 만남은, 단지 장애를 갖게 된 일순간에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가기에, 치료재활에 이어 사회재활 그리고 스
함께 동행하고자 합니다.
시작을 함께 하였고, 지금의 주거환경개선사
동선대표님께 나행동법인 및 해운대나눔과함
를 드립니다.

2023년 8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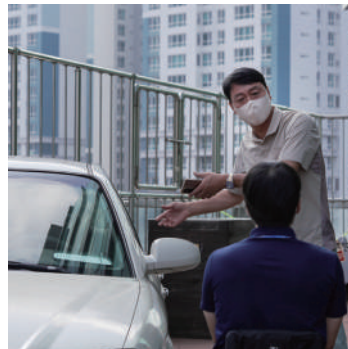
으로행복한동행



(사)나눔으로행복한동행에서 진행하는 주거환경개선 '일상속으로'를 후원하고 계신 후원인을 모시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방문하셔서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병원 라운딩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6층 회의실에서 병원소개를 하고 담소를 나눈 뒤 감사증 및 기념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날 참석하신 후원인들 모두 지금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고마운 분이십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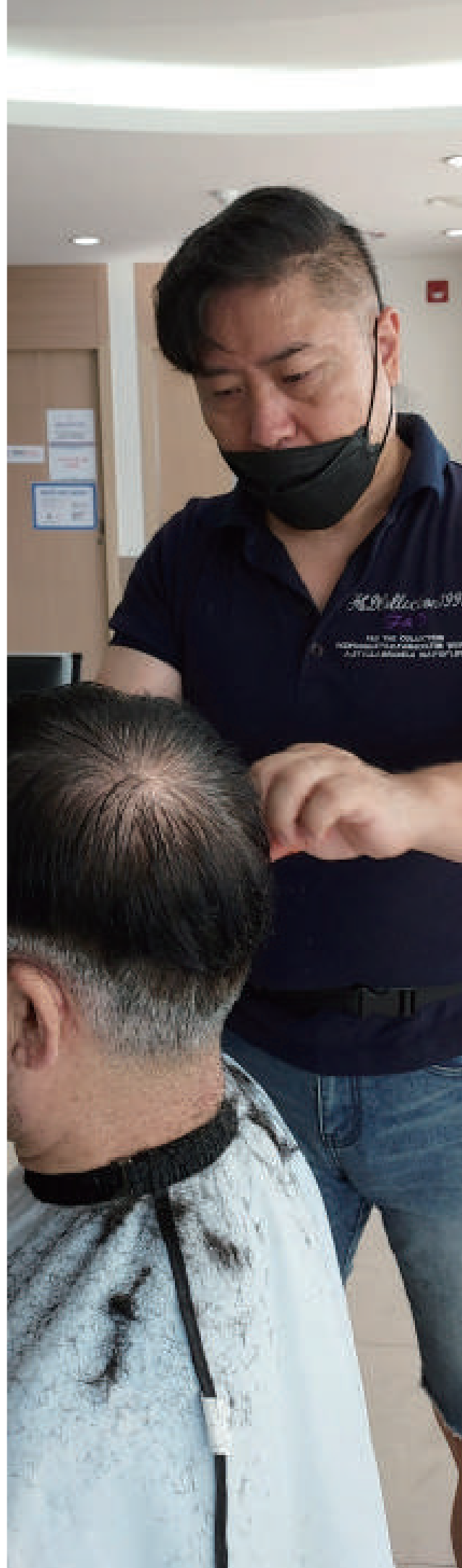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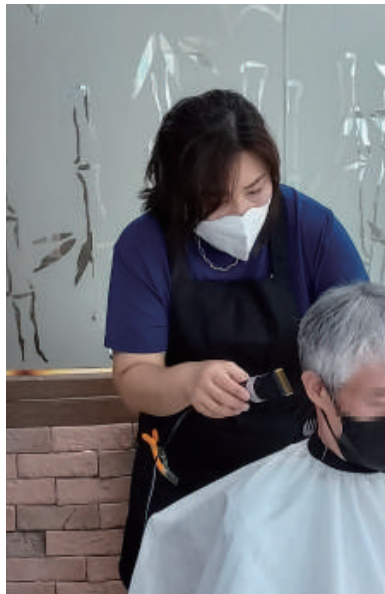
이미용프로그램 (08.14 / 08.18 / 08.29)



사회사업팀에서는 병원 생활 동안 참여자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매달 이미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참여자분들을 위해 약속된 시간에 방문해주심으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고, 재능나눔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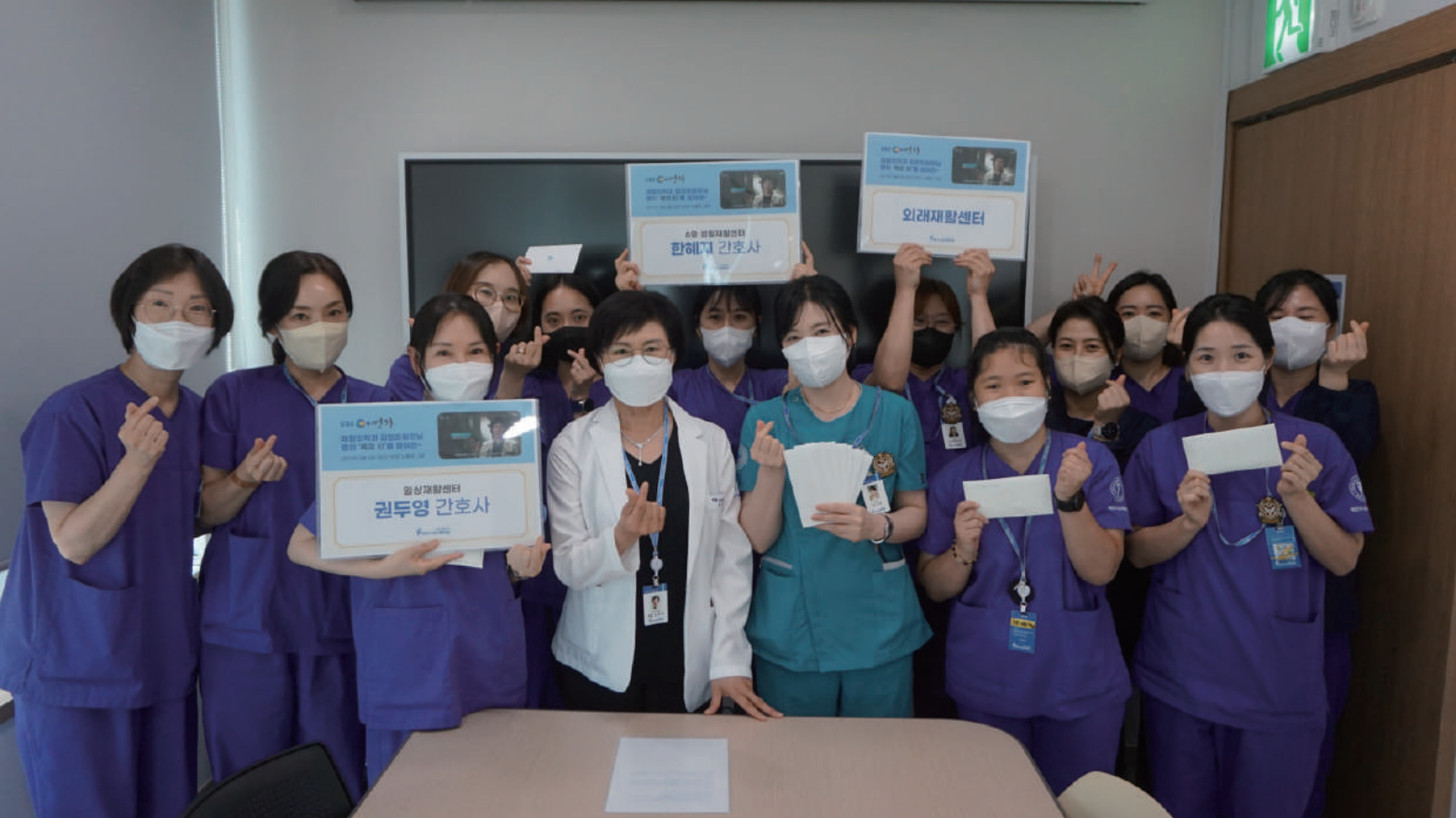
이번 달에는 총 77명이 참여하셨습니다.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EBS 명의 '뇌졸중 그 후' 김연희 원장님 출연편 '옥의 티를 찾아라!' (07.31)

간호팀에서 6/24일 시행한 재활전문간호교육 1부에서 김연희원장님께서 '인지재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대해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강의가 너무 재미있어서,,모두 강의에 빠져 시간가는줄 모르고 행복하게 강의를 경청했고, 아쉬워하는 간호팀원들에게 강의가 마무리될 즈음에

EBS 명의 김연희원장님편 '뇌졸중 그후'

본방 시청하신분이 있었는지 질문하셨고, 그 질문에 유일하게 간호팀장님만 본방 시청을 했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김원장님께서 몇 년전 명의를 촬영하실 때를 떠올리시며 'EBS 명의 제작팀들이 며칠간 서울삼성병원에서 상주하면서 긴시간 녹화를 하였다~'고 얘기해주시며 영상을 보면 '옥의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간호팀에서 '옥의티를 찾으면 시상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일명 '옥의티를 찾아라~'간호팀의 이벤트가 시작되었고,다음날이 일요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보'를 할 정도로 무척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취합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김원장님께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총평까지 해주셔서 감동하였는데, 7/31(월요일) 실제 시상식을 진행하면서 상품 규모에 또 한번 큰 감동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만들어주신 김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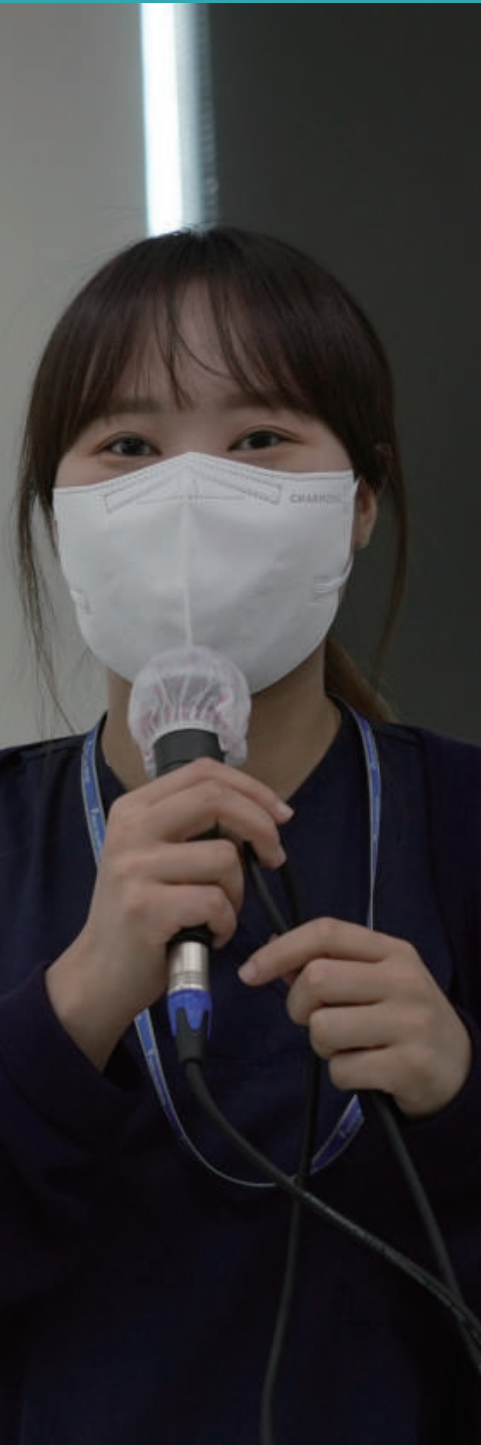
일상재활센터 (낮병동)

출석왕 자립왕 수상 (08.04)



일상재활센터에서는 '나 스스로 한다'라는 자립활동을 통해 참여자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성취감을 느끼고, 가정과 사회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사람들에게 축하받으며 지속적으로 역할을 찾고 의미와 목적이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하여 '출석왕 & 자립왕'을 매월 선정하여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 출석왕과 우수 자립왕에 수상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계속 파이팅입니다!!



아이가 바라보는 낯선 편견

말의 부딪침 속에서 대화의 재미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라디오 채널인지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마 라디오 공익광고 같았다. '아이들은 칭찬과 격려, 그리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낄 때 잘 자란다.' 이 말은 어느새 내 육아일상에 지침서가 되었다. 칭찬, 격려 그리고 사랑!

어느 저녁일이다. 늘 그렇듯 평범한 저녁식사 중이다. 두 아이들이 태권도 갔다 온 뒤의 시간이라 우리의 저녁식사는 7시30분쯤이 되어서야 시작된다. 어릴 적 아빠의 퇴근시간을 기다리던 녀석들은 없다. 아이들의 태권도학원을 마치기를 기다리는 엄마와 아빠가 있을 뿐이다.

식사 도중 대뜸 초등 큰아들이 말을 꺼낸다.

"아버지, 화장실에도 편견이 있어요!"
"화장실에 무슨 편견이 있다는 말이나?"
"화장실에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도 편견 아닐까요? 빨간색을 좋아하는 남자도 많고, 파란색을 좋아하는 여자도 많으니깐, 저렇게 색상으로 남자, 여자를 표시하는 건 편견 아닐까요?"
"오~ 대단한 관찰력인데!"

나는 라디오 메시지처럼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칭찬해주기를 곧잘 한다. 그렇게 칭찬을 먹은 아이는 이어서 의견을 이야기 한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화장실 표시에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도 편견 아닐까요? 우리 친구들보면 여자아이들 치마보다 바지를 더 많이 입어요. 여자도 바지를 입는데, 여자가 치마를 좋아한다는 것은 편견 아닐까요?"
"멋진 의견이야! 그래, 요즘은 남자도 치마를 입기도 하니 말이다. 반드시 화장실 표시가 파란색/빨간색, 바지/치마 로 구분하는 것은 어쩔 너의 의견대로 편견일 수 있겠다. 네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는 화장실 표시가 달라질지도 모르겠네. 역시 큰아들은 의견을 잘 낸다니깐!"
"헤헤헤~"
"근데 너 편견이 무슨 뜻인지는 아니?"

나 역시 어쩔 초등학생이라 '편견'이라는 단어 뜻을 모를 거라는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에이~ 아버지, 저 그 정도는 알아요! 한쪽으로는 생각하고 한쪽으로는 바라보는 거잖아요."

"역시~ 책을 많이 읽으니 똑똑해서 잘 알고 있네!"
(사실 책을 많이 읽지 않는 녀석이지만, 항상 칭찬은 이런식으로 하는 편이다. ㅋㅋ)
"하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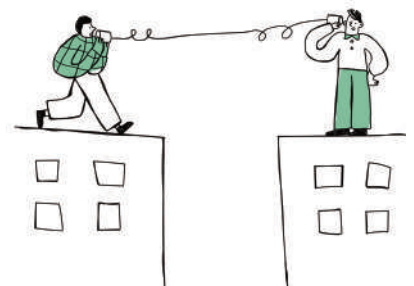
그로부터 24시간이 채 안된 다음날 저녁, 나는 책상에 앉아 어제 아이와의 대화를 곱씹어 본다. 지극히 평범한 저녁식사 중 대화였다. 특별할 것도 없는 일상이다. 근데 '편견'이라는 단어는 어쩔 우리 일상에 너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단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린 지금도 수많은 다름과 편견 속에서 오늘을 보내고 있다.

우리는 생각을 한 후 의견을 낸다고 주장하지만, 어쩔 그 의견이 자기가 살아온 오랜 습관에서 나온 의견일 가능성이 높다. 즉, 그 의견조차 자기중심적 '편견'일 가능성이 높고, 자기 경험에서 나온 '선입견'일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의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편견과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대화란, 내 말이 맞음을 일방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 어느 때는 일치의 쾌감을 얻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다름의 묘미를 깨닫기도 하는, 말로 가능한 최고의 성찬이다. 서로를 신뢰하기에 의견이 달라도 기분이 상하지 않고, 오히려 말의 부딪침 속에서 대화의 재미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게 바로 통하는 사이가 아닐까?
_이석원《우리가 보낸 가장 긴 밤》(달 출판사)

직장 선임과의 대화, 거래처 담당자와의 통화, 부모님과의 이야기, 친구들과의 수다, 자식과 주고받는 말들 속에서도 많은 편견이 자리 잡고 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대화 속에서 '다름'을 '틀림'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대화란 내 말이 맞음을 일방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다. 의견이 일치할 땐 쾌감을, 다를 때는 묘미를 깨닫는 것이다. 말의 부딪침 속에서 대화의 재미를 찾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이가 통하는 사이이지 않을까?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애나 어른이나
피곤할 터이다.



오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날을 추억합니다.

공유하는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갈 수 있습니다.